"여수 청소대행업무 공개경쟁입찰 도입해야"

시민공청회… 시 직영 등 방식전환 필요

상호경쟁 통해 예산절감 효율성 극대화

장기 독점과 수의 계약으로 특혜시비를 불러왔던 여수 청소대행 업무를 시 직영 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와 예산 절감을 해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13일 여수 지방항만청 3층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청소대행업무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철문 지방공기업 평가원 연구원은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기준으로 원가 설계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 비효율성과 과도한 예산지출이 수반돼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현행 여수시 청소대행업무를 개선, 시 직영 및 공기업에 위탁 관리하면 향후 5년간 민간 운영대비 159억여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 위탁의 경우 인력 및 장비 보유를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방식과 방향성 제시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 대전, 파주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도시공사로 이관땐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산 절감,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체측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대석 변호사는 "4개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 수의계약은 장비도입과 청소 인력 운영상 장기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라면서 "매번 반복되는 태풍피해와 거북선 축제 등 비상근무하면서도 불평 없었던 대행사를 타 지자체와 단순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공익을 도외시하는 집단으로 매도함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 청소대행 업무 도시공사 이관 움직임에 대해 이원준 교수 (전남대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청소대행 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며 "전문가 한 명 없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청소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냐. 노선의 합리화,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문갑태 사무국장(여수 환경운동연합)도 "도시공사는 민선 5기 김충석 시장이 폐지를 공약한 기관이다"며 "청소대행 업체를 시에서 직영하든지,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 업체들과의 상호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녹차는 역시 보성녹차

전국 지리적 표시 등록 '최우수상'

지리적 표시 제1호 농산물인 보성녹차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한 전국 지리적 표시 우수단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과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또 벌교꼬막(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도 장려상과 함께 6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132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보성녹차는 ▲제품 경쟁력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제품 유통현황 ▲홍보 및 마케팅 실적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보성녹차는 군수품질 인증제 실시와 3년 연속 국제 유기인증 획득 등으로 제품 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녹차와 벌교꼬막을 비롯해 ▲보성삼베(제45호) ▲보성 웅치올벼쌀(제71호)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농·수산물을 '지리적 표시'에 등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김용백기자 kyb@

전남 단설유치원 10월 중 개원하나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설립 조례안이 부결돼 논란이 됐던 전남의 한 단설유치원에 대한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재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제271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전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흥 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대신 단설 유치원인 '고흥 푸른꿈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기 3학급으로 개교하되 점차 인원을 늘려 5학급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설 유치원은 당초 지난달 말 완공돼 이달 초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이의제기 등으로 관련 조례안이 부결처리돼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을 샀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교육청이 3년 전부터 사업비 30여 억원을 들여 건립한 단설유치원이 준공을 눈 앞에 두고 개교를 한 학기 늦출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의회가 지난 4월 해당 유치원 설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어 당시 부결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몽니 심의' 논란도 제기됐었다.

도교육청은 '개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10월1일자 시행을 목표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현지 여론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교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고흥군, 장애우들과 사회적응 소통 화합한마당

고흥군은 지난 13~14일 팔영체육관에서 도내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장애우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전남 정신건강 소통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군별 장기자랑과 우주천문 과학관 견학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고흥군 제공〉

전통술은 남도명주

11종 선정… 10월 우리술 품평회 출품

전남도는 지역 대표 명품 술로 순천 팔마탁주의 '친구사이' 등 남도명주 11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도명주는 18개 업체서 22개 제품을 출품한 2012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최근 선정됐다.

남도명주는 국내산 원재료 사용 여부, 술 품질인증 등 서류평가와 국내 전통술 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종별로 생막걸리 부문에 친구사이(㈜순천 팔마탁주), 정고집 옛날생동동주(나주 남도탁주), 살균막걸리 부문에 매실막걸리(광양 백운주조), 청주·약주부문에 갈대의 순정(순천 녹색수출법인), 과실주 부문에 천지향복분자술(함평천지 복분자영농조합) 등이다.

선정된 제품은 10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전남 대표 브랜드로 출품된다. 또 내년 이달의 남도 전통주 선정 대상이 되는 등 전남도를 대표하는 전통술로서 다양한 홍보활동에 활용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통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유도, 술 품질 인증 확대 등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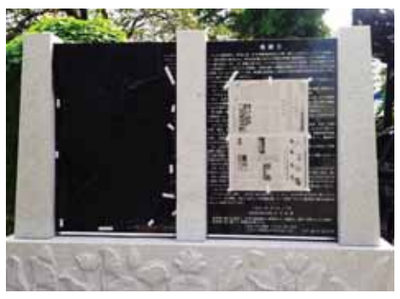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 북

비석 2제

일제의 만행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日 불교종단, 군산 동국사에 '참회비' 제막



광복 후 67년 만에 일본 불교인들이 일제 강점기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는 비석을 군산에 세웠다.

일본 불교의 대표종단인 조동종(曹洞宗) 스님 10여명은 16일 동국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동국사 창건 제104주년 다례제'에 참석, 참회법회를 가졌다. 조동종은 일본의 선(禪)불교를 행하는 종단이다.

이날 법회에서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협력하고 전쟁에 가담했던 조동종에 대한 공식 '참사(懺謝 · 참회와 사과의 줄임말로 불교 용어임) 문비'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동국사 앞뜰에 가로 3m·높이 2.3m 크기로 제작된 비석에는 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함께 새겨져 있다.

비문에는 해외포교라는 미명하에 일제가 자행한 야욕에 수많은 아시아인이 인권침해, 문화 멸시를 당한 것은 불교적 교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석가 세존과 역대 조사(祖師)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써 진심으로 사죄하며 참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립비용은 일본에서 전액 부담하고, 석재는 최고급 황등석으로 익산에서 제작됐다.

한편 조동종은 1945년 일제 패망 당시 한국에 160여 개의 사원과 포교소를 거느린 거대 종단이었다. 군산 동국사는 1909년 이 종단의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400년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움

부안군, 도봉산에 이매창-유희경 '시비' 제막

"이화우(梨花雨)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이매창)

"그대 집은 부안에 내 집은 서울에 있네/ 그리움 사무쳐도 서로 못보고/ 오동나무에 비뿌릴제 애가 끊겨라"(유희경)

부안 출신의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매창(1573~1610)과 그녀의 정인(情人)인 유희경(1545~1636)이 400여년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뤘다.

부안군은 지난 13일 서울 도봉산 생태공원에 이매창과 유희경의 사랑을 기리는 시비를 제막했다. 또한 부안군과 도봉구청은 시비 제막을 계기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경제,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시비는 가로 1.2m, 세로 1.7m 크기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빗각모양으로 2개를 제작해 마주보도록 했다.

시비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주고받은 한시(漢詩) '이화우'와 '매창을 생각하며'를 각각 새겼다.

한편 이매창은 한시(漢詩)와 가무(歌舞) · 현금(玄琴) 등에 뛰어난 여류 예술인이었으며 한시집 '매창집'(梅窓集)을 남겼다. 송도(개성)삼절(황진이·서경덕·박연폭포)과 대비해 이매창과 유희경, 직소폭포를 '부안삼절'(三絶)이라고 일컫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 석정문학관, 10월 25일까지 특별강좌

'신석정의 문학과 인생'

부안출신 석정 신석정(1907~1974) 시인의 문학과 인생에 관한 특별강좌가 마련돼 동호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석정문학관은 지난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1회 특별강좌를 열고 있다. 이번 강좌는 허소라 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신석정의 문학과 인생'을 주제로 문학과 시, 수필 등 장르별로 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정문학관은 하반기에 지역문화 창달과 인재 양성을 위해 '언어·독서·논술교실'과 '한자·한문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석정문학관은 지역 인문학의 깊이와 넓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학습공간을 마련, 제공하고 있다. 스터디 영역은 문학과 철학, 사학, 문화 등이며, 인원은 4~5명 내외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문학이 흐르는 길을 따라'라는 테마 아래 석정문학관을 '9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신석정 시인은 1930년대 '시문학' 동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목가(牧歌)적인 서정시를 발표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교육청-원광대·우석대와 방과후 협약 체결

다문화사회·인성·특수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최근 원광대·우석대와 잇따라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광대는 다문화사회·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 중점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우석대는 특수교육 분야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양 대학은 10월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를 앞두고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교과부는 10월에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 기업을 1차 선정하고 11월 중 2차 선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올해 전북대·군산대·전주대가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돼 교과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35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중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단신

전주 고지대 내년부터 용담댐 물 공급

전주시는 현재 임실 오원천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평화동, 완산동, 서학동 등 고지대의 7개 동(洞)에 내년 3월부터 용담댐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용담댐 물의 수질이 더 좋은 데다 오원천 물을 쓰는 과정에서 임실군민과 자주 갈등이 빚어져 지난해부터 90억원의 예산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송수관로 정비와 배수지 신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공식블로그 '단이풍이' 4행시 이벤트

정읍시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eongeupnews)인 '단이풍이' 가을맞이 4행시 이벤트를 갖는다.

이번 이벤트는 정읍시 공식 블로그인 '단이풍이'로 4행시를 지어 비밀 댓글로 남긴 방문자 5명을 선정해 '단풍미인쌀' 10kg과 '내장산 한과'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개설한 정읍시 공식블로그 방문자수는 올 9월 현재 16만1000여명에 달하는 등 네티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서 '옥보고 거문고' 경연 전국대회

거문고 명인 악성(樂聖) 옥보고(玉寶高) 선생의 맥을 잇는 '제9회 전국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가 16일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상원 소리터에서 열린다.

삼국사기 악지 편에는 옥보고 선생이 신라 경덕왕때 거문고를 들고 지리산 운상원(雲上院=현재 남원시 운봉읍)에 들어가 50여년 동안 거문고를 연마하며 '상원곡(上院曲)'과 '중원곡(中院曲)' 등 30여 곡을 지었다고 전한다.

(사)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회장 김무길)는 매년 전국 규모의 거문고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고창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음식바자회'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센터앞 광장에서 다문화음식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김부각과 오이·깻잎·연근·우엉조림 등 다양한 반찬과 함께 베트남 쌀국수, 중국 만두, 월남 쌈 등을 선보였다.

센터는 이주여성의 취업을 위해 희망자 17명을 선정, 취업 · 창업 훈련과정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부각류 및 반찬, 나물 가공제조 방법을 교육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